



2025년 1월 5일(제1228호) 주님 공현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이기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성탄 축제를 마치고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는 1독서로 만난 이사야 예언처럼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들은 바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장차 어떤 분이 되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이 공현 대축일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황금.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임금으로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금은 값어치가 제법 있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 황금은 가장 귀한 보물로 임금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는 임금이십니다.

유향. 사제를 위한 예물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사제는 유향을 사용했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는 대사제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제의 역할은 무엇보다 인간을 하느님과 만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대사제라는 말의 라틴어 pontifex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제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서 하실 일입니다. 아니,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과 인간을 하나로 잇는 다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 나아갑니다.

몰약.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예물입니다.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데 사용하던 귀한 물건이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역설적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께 바쳐진 이 예물들은 장차 이분이 어떤 분이 될지를 예고합니다. 바로 우리의 임금이시며 대사제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의 공현 대축일을 지내며 임금이시며 대사제이시고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선물로 드리며 가만히 무릎을 꿇고 경배드립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아멘.



김항래(대진안드레이) 신부
인천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60,1-6
- 회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제 2 독 시 에페 3,2.3나.5-6
- 복음 본보 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복 음 마태 2,1-12
- 영 성 재 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이홉 번째 시한

저희를 재난에서 구원하소서. 엄청난 환난이 저희에게 너무도 모질게 덮쳐 왔습니다. 원수들이 저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신 당신의 유산을 파멸하려 덤벼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높은 데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들을 대항하여 설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경애하올 신부님들께서 열절한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과 성모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거듭 맡깁니다.

금년에 저의 사목 순방 도중에 중단된 성무 집행의 연말 보고를 드립니다. 1,622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었고, 어른 203명에게 세례성사를 집전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어른 임종자 13명에게 대세를 주었고, 예비 신자 398명이 등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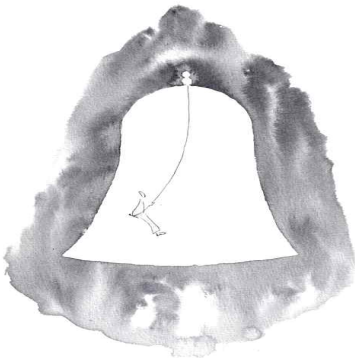
지극히 겸손하고 순종하는 종, 조선 포교지 탁덕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끝.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울림



이 작은 몸것이
은은한 울림으로
퍼져갈 수 있다면.

하늘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이 작은 기도가
간간한 평화로
전해질 수 있다면.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동방박사의 경배



도밍고스 세케이이라(Domingos Sequeira), 1828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100×140cm / 리스본 국립 고대 미술관, 포르투갈

이 작품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밝은 별이 야기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멈춘 것을 화가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탁월하게 표현하였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야기 예수님과 성모님을 비추고 있으며, 그 옆에 성 요셉 성인이 성모님의 청색 겹옷을 들고 계신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박사들뿐 아니라, 15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이 이국적 의복 및 머리 장식을 하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말과 낙타, 코끼리들도 걸맞게 이국적 장식을 한 모습으로 각기 자신의 경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경에서 화려한 의복을 입은 몇몇은 이 빛을 신기한 듯이 관찰하며 토의하고 있고, 어떤 이는 양산으로 이 빛을 가리고 있기도 하다. 이 그림은 빛에 둘러싸인 동방박사의 경배 장면을 마치 몽환적이면서도 극적인 효과를 가미하여 표현하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공현 대축일: 공군본부 박윤배 신부

◆ 교구장 동정

- 군중후원회 신년 미사
 때·곳: 1월 6일(월) 15: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제16회 청소년 전례봉사자 겨울캠프 파견미사
 때·곳: 1월 10일(금) 10:00, 용평리조트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신년하례식
 때: 1월 9일(목) 14:00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각진성사의 해” - “상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